

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재닛 옐런 Fed 의장의 비둘기 발언에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거래가 확산해 장기물 위주로 하락

* 국채가격, 개장초 중국 물가지표 상승 탓에 하락세로 출발한 후 소매판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방향성 없이 움직임

* 이후 10월 美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예상 밖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일 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지만, 오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둔 경계로 국채가 낙폭 축소는 제한

* 오후 들어 옐런 의장의 연설이 느린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단기물을 매수하고, 장기물을 매도하는 수익률곡선 '스티프닝' 거래를 활성화해 장기물 위주로 국채가 낙폭을 다시 확대

[미국]

2y 0.83% (+0.0bp)

10y 1.80% (+5.7bp)

30y 2.56% (+8.1bp)

[기타 10Y물]

영국 1.09% (+7.2bp)

독일 0.05% (+1.9bp)

프랑스 0.33% (+0.7bp)

이탈리아 1.38% (+0.3bp)

스페인 1.12% (+0.8bp)

그리스 8.22% (-2.1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연준 의장 발언 속 은행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

* Fed 옐런 '부진한 성장률을 살리기 위한 일시적인 경기 과열은 괜찮다' 옹호

- '단기적으로 성장 속도를 올리는 것은 기업이 자본 지출을 더 늘리도록 유도... 이는 경제에 미칠 이점을 장기화할 수 있고 미래 성장률도 더 부양'

- 美 경제성장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성장률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

* 미국 대형 은행들,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월가 예상보다는 나은 실적을 공개

- JP모건, 올해 3분기 순익과 매출이 감소했으나 예상치 상회... 주가 장중 2% 가까이 올랐으나 장중

하락 전환해 0.3% 내림세 마감

- 씨티그룹&웰스파고 3분기 매출과 순익, 월가의 전망치 상회

* 美 소비·물가지표 호조...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

- 9월 소매판매, 전월대비 0.6% 증가 (예상치 부합) ... 전월 0.2% 감소에 비해 크게 개선
- 9월 PPI, 전월대비 0.3% 상승하며 전망치(0.2% 증가) 상회... 2014년 12월 이후 최대 오름 폭

* <유럽 마감> 중국 물가지표 호조에 일제히 반등... 은행주 반등도 상승에 일조

* <상하이 마감> 전일 발표된 中 무역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지표 호조 & 주초반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강보합 마감

* <도쿄 마감> 중국 물가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 상승하며 마감

DOW30	18138.38	(+0.22%)
NASDAQ	5214.16	(+0.02%)
S&P500	2132.98	(+0.02%)
NIKKEI225	16856.37	(+0.49%)
SHANGHAI	3063.81	(+0.08%)
FTSE100	7013.55	(+0.51%)
DAX30	10580.38	(+1.60%)
CAC40	4470.92	(+1.49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중국발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면서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약해진 데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계속돼 상승

유로/달러	1.0971	(-0.0082)
유로/엔	114.68	(+0.07)
달러/엔	104.14	(+0.47)
달러/위안	6.7157	(-0.0139)...8거래일만에 절상
파운드/달러	1.21814	(-0.00699)
NDF	1136.00 / 1137.00원	...4.05원 ↑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미국 원유채굴장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

- 베이커휴즈, 주간 미 원유채굴장비 4개 증가한 432개를 기록...채굴장비수, 지난 7주 연속 늘었으며

16주 동안 15주 증가

* <국제 금값>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연내 금리인상 전망 상존, 뉴욕증시 강세 등으로 하락

WTI 50.35 (-0.2%)
COMEX금 1255.50 (-0.2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22.66 (+0.36%)
코스닥 664.92 (+0.28%)
원/달러 1132.10 (-3.80)
KTB 110.71 (0.00)
LKTB 131.65 (-0.15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변동성 끝에 혼조세 마감. 장기물은 소폭 상승
- 새 국제회계기준(IFRS4) 2단계 도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짐
- 중국의 9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0.1% 상승하면서 4년8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이 약세폭을 더 키우는 재료로 작용
- 오후 들어 IFRS4 2단계 도입에도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매수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약세폭을 빠르게 되돌림

1y 1.3470% (+0.10bp)
3y 1.3190% (-0.40bp)
5y 1.3640% (-0.60bp)
10y 1.5500% (+0.70bp)
20y 1.5900% (+1.20bp)
30y 1.5990% (+1.20bp)
50y 1.5820% (+0.80bp)
CD 1.3400% (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5.15bp	(-0.20bp)
2Y	-5.25bp	(0.00bp)
3Y	-2.65bp	(+0.65bp)
5Y	-3.15bp	(+1.85bp)
10Y	-12.75bp	(+0.8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최근 하락세에 대한 되돌림으로 소폭 상승 마감.

* CRS, 최근 하락세에 따른 되돌림으로 다소 상승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음.

*IRS 금리

1Y	1.3025%	(0.00bp)
2Y	1.2825%	(0.00bp)
3Y	1.2925%	(+0.25bp)
5Y	1.3325%	(+1.25bp)
7Y	1.3600%	(+1.25bp)
10Y	1.4225%	(+1.50bp)

1*2Y	-2.00	(0.00bp)
2*3Y	1.00	(+0.25bp)
2*5Y	5.00	(+1.25bp)
3*5Y	4.00	(+1.00bp)
5*7Y	2.75	(+0.00bp)
5*10Y	9.00	(+0.25bp)

*CRS 금리

1Y	1.1650%	(+0.50bp)
2Y	1.0150%	(+1.00bp)
3Y	0.9550%	(+1.00bp)
5Y	0.9050%	(+1.00bp)
7Y	0.8400%	(+2.00bp)
10Y	0.8200%	(+2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- * 중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55개월만에 상승...소비자 물가는 +1.9%
 - 9월 생산자물가지수,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.1% 상승... 0.2% 하락을 전망한 시장 예상을 깨고 2012년 3월 이래 55개월 만에 상승
 - 생산과잉과 주택 재고 해소 등 당국의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다소 완화했고, 주요 산업의 판매와 재고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
 - 또 원유, 철광석, 비철금속 등 원자재 시장 상황이 호전돼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
- *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'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' 전망
 - "리세션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기 호황이 전망되지도 않는다... 다만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'부진할 것'"
- *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, 올해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진단
 - '美 경제, 완전 고용과 연준의 물가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...기준금리는 올라가야 한다'
- * 美 8월 기업재고 0.2% (예상:0.1%)
 - 美 10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91.2-> 87.9 (예상:91.7)...2015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* 미국 경제, 4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60%로 집계 <WSJ 설문>
 -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경기를 후퇴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美 역사상 10년 이상 호황기가 지속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설명
 -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는 경기 순환 주기와 미국 Fed의 정책 실패, 외부 충격 등이 거론
- * BOE 마크 카니 총재 '영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가가 목표치를 소폭 웃도는 것을 감내할 준비 되어있다'
- *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('BBB-') 유지 &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으로 상향

[국내]

- * IFRS4 유예 가능성, 보험업계 '기대반 걱정반'...채권시장 '초긴장'
 -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새 국제회계기준(IFRS4) 2단계 도입을 2년 늦추는 방안에 찬성 입장 밝혀. 진웅섭 원장의 발언으로 IFRS4 2단계 도입 유예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.
 -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게 돼 국내 보험사는 자본확충이

불가피.

- 국내에서는 내년 상반기 기준서 발표 후 약 3년 후인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. 하지만 한국 회계기준원이 2년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해 IASB는 오는 12월 전까지 논의 할 예정
- 보험사들의 새로운 IFRS4 도입을 위한 장기물 매수는 올해 내내 커브 평탄화(플래트닝) 요인으로 작용
- 시장참가자들은 14일 그동안 장기물 수급 이슈가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됐던 만큼 IFRS4 2단계 도입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장기물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
- 다만 IFRS4 2단계 도입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매수는 이어질 것이라는게 채권시장의 중론

****주간 예정 지표****

10월 17일

[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연설]

유로존-9월 CPI(YoY) (예상:0.4%, 이전:0.4%)

-9월 근원 CPI(YoY) (예상:0.8%, 이전:0.8%)

-9월 CPI(MoM) (예상:0.4%, 이전:0.1%)

미국-10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(예상:1.00, 이전:-1.99)

-9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2%, 이전:-0.4%)

-9월 제조업생산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4%)

10월 18일

[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연설 & 10월 회의 의사록]

미국-9월 근원 CPI(MoM) (예상:0.2%, 이전:0.3%)

-9월 CPI(MoM) (예상:0.3%, 이전:0.2%)

-9월 근원 CPI(YoY) (예상:2.3%, 이전:2.3%)

-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(예상:63, 이전:65)

영국-9월 CPI(YoY) (예상:0.9%, 이전:0.6%)

-9월 CPI(MoM) (예상:0.1%, 이전:0.3%)

10월 19일

[Fed 베이지북]

[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]

[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]

중국-3분기 GDP(YoY) (예상:6.7%, 이전:6.7%) / GDP(QoQ) (예상:1.8%, 이전:1.8%)

-9월 산업생산 (예상:6.4%, 이전:6.3%)

미국-9월 건축허가 (예상:1.164M, 이전:1.139M)

-9월 건축허가(MoM) (예상:0.9%, 이전:-0.4%)

-9월 주택착공 (예상:1.175M, 이전:1.142M)

-9월 주택착공(MoM) (예상:2.5%, 이전:-5.8%)

-EIA 주간 원유재고

영국-9월 실업수당청구변동 (예상:3.0K, 이전:2.4K)

-8월 실업률 (예상:4.9%, 이전:4.9%)

한국-9월 PPI(YoY) (이전:-1.7%) / PPI(MoM) (이전:0.1%)

10월 20일

[ECB 통화정책회의]

[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]

[유럽연합(EU) 정상회담]

[브라질 & 터키 기준금리 결정]

미국-10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(예상:5.8, 이전:12.8)

-9월 기존주택판매 (예상:5.35M, 이전:5.33M)

-9월 기존주택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-0.9%)

독일-9월 PPI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1%)

영국-9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3%, 이전:-0.2%)

10월 21일

[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연설]

[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]

중국-9월 주택가격(YoY) (이전:9.2%)

유로존-10월 소비자기대지수 (예상:-7.9, 이전:-8.2)